

이라크 전쟁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위원 **김 정 익**
한국국방연구원

3월20일 오전 6시15분 후세인이 은신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비롯한 전략적 요충지를 타격함으로써 시작된 이라크 자유작전(Operation Iraq Freedom)은 당초 6~8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4월 9일 미·영 연합군이 바그다드 중심부를 장악하고, 후세인 동상을 철거하는 등 사실상 3주 만에 전쟁 목적을 달성하였다.

I. 새로운 전쟁

연합군의 이번 작전은 재래식 전쟁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 걸프전과 비교해서도 전혀 다른 전쟁이었다. 재래식 전쟁의 개념은 작전의 목표를 적부대의 격멸에 두고, 지상군 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의 전략적 또는 작전적 주요 지점을 폭격하는 것이었다.

공격준비파괴사격이 그 예로, 주요 공격 목표는 제공권 장악에 방해가 되는 대공방어시설, 지휘통제본부, 미사일 기지, 비행장, 대량살상무기 보유시설과 기타 시설 등에 집중된다.

1991년의 걸프전쟁 때에는 이 폭격을 39일간 실시함으로써 지상군은 쉽게 작전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번 이라크전에서는 작전의 목표를 후세인 제거에 두었다. 최초 타격도 후세인이 은신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궁, 바트당사, 중앙정보국 본부, 정보사, 방공사령부 등 바그다드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이미 제공권을 장악한 연합군은 폭격 1일 만에 지상군을 투입하였으며, 3일 만에 400여km를 기동하여 바그다드 이남 100km 지점까지 도달하였다. 즉 이번 전쟁은 작전의 목표를 전쟁목적과 동일하게 선정함으로써 폭격 및 기동을 여기에 집중한 것이다. 중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적부대는 우회함으로써 유희병력으로 만들거나 항복을 유도하였다.

이에 대한 이라크의 작전은 제공권을 장악당한 상태에서 미·영 연합군과 정면대결은 회피한다는 전략이었다. 즉 기계화부대를 사막지역에 배치하지 않고 바그다드 남부에 집결시킴으로써 시가지와 하천을 이용한 방어를 기도하였고, 내선의 이점을 이용하여 신속한 증원병력 투입을 시도하였다. 메디나·바그다드·니다 사단 등이 ‘레드 라인’ 지역에서 연합군에 정면대결하고, 이어 후방의 함무라비·느부갓네살·아드난 사단 등을 남하시켜 바그다드를 방어하려고 하였다. 한편 후방지역에서는 연합군을 일단 통과시키고 게릴라전 방식으로 병참선을 위협하였다. 이를 위해 후세인은 후방 도시에도 1개월분의 식량을 분배하였고, 페다인 부대를 파견하여 지역 민병대와 함께 끈질긴 저항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바스라, 나시리아, 나자프 등지에서 이들은 민간인과 혼재된 상황을 이용하여 연합군에 피해를 주고 후방을 불안하게 하였다.

작전은 대체로 연합군의 계획대로 진행

구 분	최 초	차 후
목 표	후세인 제거	적부대 격멸
가 정	내부 와해 기대	시가전
방 법	정밀타격	지상작전
지상작전	바그다드로 신속한 이동	후방지역 안정, 시가전

미·영 연합군 작전

구 분	예 상	실 제
기동저지	댐, 교량 파괴	파괴하지 않음
주민통제	식량창고 파괴로 혼란 초래	1개월 이상, 안정적 대응
남부도시	남부도시의 신속한 항복	페다인, 민병대로 게릴라전
바그다드	바그다드 강력 방어	예상 밖의 무기력

이라크 작전

되었다. 연합군의 작전과정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단계는 4회에 걸친 정밀폭격이며, 2단계는 지상군 투입 및 바그다드로의 신속한 진격, 3단계는 재충전 및 병참선 보호, 4단계는 바그다드 외곽에서 이라크 사단과의 교전, 5단계는 바그다드 진입, 6단계는 이라크 북부지역의 전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에서 연합군은 약 3일간 모래폭풍과 병참선을 위협하는 게릴라 등에 의해 고전을 겪었지만 대체로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연합군 지상작전의 주안점은 유프라테스·티그리스 강을 도하할 수 있는 교량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주요 전투가 벌어진 곳도 이 지점이었다.

나시리아, 스마와, 힐라, 힌다야, 카르발라, 쿠티 등지는 고속도로 및 교통의 요지였다.

이러한 새로운 양상의 전쟁은 장거리 정밀타격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능하게 된 것

이다. 걸프전 이후 미국의 IT 기술은 20배쯤 발전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많이 소개된 다양한 무기체계와 폭탄들이 이를 증명해 준다. 걸프전 때 7%에 지나지 않던 정밀탄이 이번 전쟁에서는 70% 가까이 사용된 것이 대변해 주듯, 미국은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지상군의 공격이나 전쟁의 종결을 기도하였다.

비록 사담 후세인이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공격은 병력의 피해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새로운 전술이다. 더구나 인명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적의 지휘부를 파괴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은 심리전이 주요한 전술의 하나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였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의 지도체제 및 군대의 저항을 와해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심리전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전쟁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전단의 살포 및 군 지휘관의 회유 등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 또한 무모한 희생을 줄이고자 실시된 것으로, 특히 이라크의 정예부대로 알려진 공화국수비대와 후세인의 측근세력에 집중되었다.

미국은 후세인 추종자 및 공화국수비대 지휘관의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CIA와 반후세인 세력을 이용하여 전화로 회유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촉의 목적은 내부의 반란을 유도하여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자 함이었는데,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최초에 후세인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이라크 군인들과 민간인들에게는 유효하였다.

이라크군은 첨단무기의 미·영 연합군에 끝까지 저항하기보다는 도주하거나 항복하였으며, 국민들도 일단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연합군을 환영하였다. 모두들 이번 전쟁의 최대 관건은 시가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미국은 시가전을 치르지 않은 채 바그다드를 점령하였다.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예상되던 공화국수비대는 스스로 와해되어 무기와 군복을 버리고, 민간인 복장을 한 채 도주하였다.

심리전의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났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충격과 공포’라는 작전명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미국은 공포와

심리전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피해 속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다.

II. 새로운 개념의 기동전

1차대전 말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2차대전에서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그 이후로도 지상군 전법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 기동전은 돌입(break in)→돌파(break through)→돌진(break out)의 공격방식으로 대표된다. 즉 상대보다 압도적인 부대와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방어진지에 틈(gap)을 만들고, 그 틈을 확대한 후 적의 중심으로 신속히 돌진하여 적 방어진지의 유기성을 파괴하여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동전이다.

기동전의 개념은 비록 소규모이긴 하였지만 1차대전시 그 효과를 충분히 입증했다. 최초로 전차가 사용된 솜 전투에서 전차는 불과 9대에 불과했으나 그 위력은 대단하여 독일군은 이 예기치 못한 신무기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이때의 보병 장비는 기관총이었는데, 기관총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전차는 독일군에게 패닉현상을 일으켰다.

그러나 1차대전 이후 화력의 발달과 군 규모의 성장은 점차 대부분이 적의 측익을 우회하거나 적진을 쉽게 돌파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단순한 기동이 아니라 최초 적진을 돌파하는 노력이 중요하게 되었

다. 강도가 높은 방어진지를 제병과가 연합된 부대들이 정밀공격하여 적의 방어진지에 간격을 만든 후, 기계화군이 적진을 돌파·돌진하는 개념의 전투가 수행되어 오늘날의 기동전 교리가 정립되었다.

이러한 기동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된다. 먼저 제병협동부대가 적진을 돌파하고, 돌파된 지점의 견부를 장악하여 후속부대의 돌파를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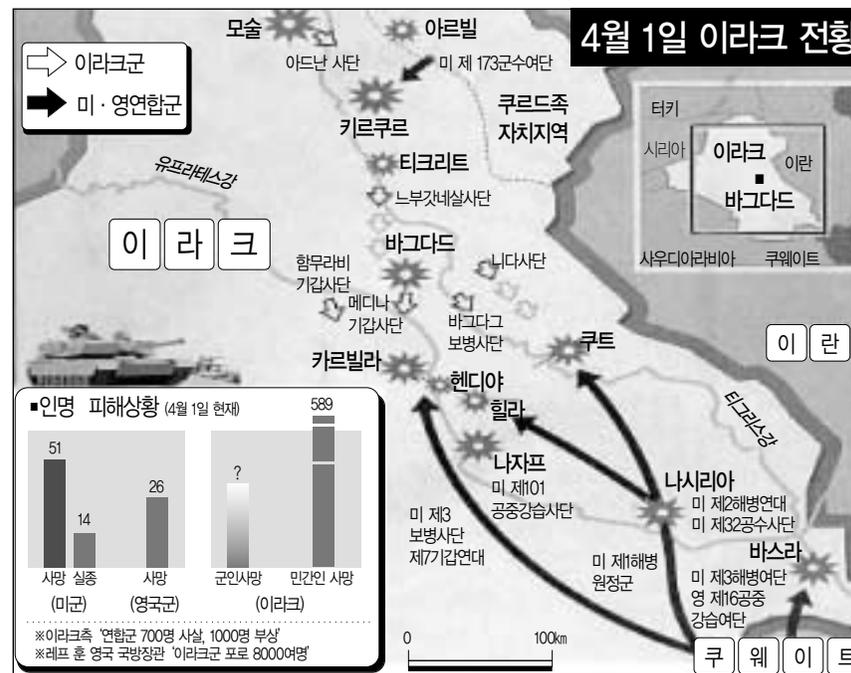
이후 돌파구 내로 기계화부대가 투입되어 적후방으로 신속히 돌진한다. 돌파구 내로 진입한 부대의 일부는 측방으로 기동하여 돌파구를 확장하면서 전선의 동시 와해·마비를 달성하고, 주력은 계속해서 전

진한다. 그리고 적후방으로 돌진하는 부대를 후속하여 전과확대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가 물밀듯이 확장된 돌파구로 전진하여 공격기세를 유지하게 한다.

선두의 기동부대는 적의 병참선이나 퇴각로를 차단하고, 적의 두뇌에 해당하는 지휘시설을 파괴하는 등 전략목표를 달성하여 적 전투력을 격멸시킨다.

이러한 기동전에서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전투력+속도이며, 전차는 바로 이 두가지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중요한 무기이다. 전차는 기동력, 화력 및 생존성을 보장함으로써 기동전의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라크 전쟁에서는 기존



의 전투수행 개념을 초월한 가히 혁신적인 기동전 개념이 적용되었다. 3주 만에 560km를 전진하여 바그다드를 함락시킴으로써 조기에 전쟁을 종결한 이번 전쟁은 미래에 미국이 실시할 전쟁의 개념을 그대로 보여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1991년의 걸프전쟁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 이번 전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사단의 투입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이라크전에 기갑사단을 투입하지 않았고, 대신에 2개의 보병사단과 1개의 해병원정군, 1개의 영국군해병사단을 투입하였다. 이들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수는 기갑부대에 비해 적으며, 시가전을 위해 다수의 보병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공수사단과 공격헬기를 보유한 공정사단을 투입하였다. 미국이 경사단을 투입한 것은 경사단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화력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월등한 기동성을 보유한 경사단은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적에 전투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목표를 향해 신속히 돌진하였다. 즉 전선에 근접한 적 전투력의 격멸 또는 돌파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과감히 우회하고 후속부대에 의해 평정 또는 단순히 견제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전투력을 절약하고 전방을 향해 돌진하였다. 과감한 전진으로 발생하는 병참선과 측방 보호의 문제는 병력이 아닌 공군

력과 공격헬기로 해결하였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감수하기로 하였다.

이번 전쟁에서 제3사단의 바그다드로의 진입보다는 장거리 정밀타격의 효용성이 더 중요하였다. 전투력의 물리적인 위치가 주는 가치 때문에 3사단의 바그다드 진입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3사단은 공군·육군항공·포병에 의한 장거리 사격으로 이미 전투력이 소멸된 적과 경미한 교전만을 벌였을 뿐이다.

우려되었던 바그다드에서의 시가전조차 장거리 정밀타격과 심리전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이렇게 화력으로 적을 사전 제압하는 데에는 특수부대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이번 전쟁에서 특수부대는 약 9000명이 투입되어 표적유도 및 유전 보호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특수부대는 아군의 전진과 관계없이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정밀타격을 유도함으로써 미래 기동전의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마치 2차대전에서 독일군이 전격전 개념을 적용한 이래 그 개념이 수십년 동안 각국의 전쟁수행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미국의 새로운 기동전 개념은 앞으로 수십년 동안 각국의 또 다른 모델이 될 것이다.

경량화된 부대, 살상률이 증가된 장거리 정밀타격, 전쟁 목적 달성을 위한 목표에 대

구 분	걸프전	아프간전	이라크전
폭 격	38일간 토마호크 290발 폭탄 25만발 (스마트탄 7%)	최초 45일간 토마호크 95발 폭탄 10만발 (스마트탄 60%)	18일간 토마호크 750발 폭탄 2만발 (스마트탄 70%)
지상병력(미·영)	68만	아프간 북부동맹 2만	30만
특수전 부대	3000	아프간 2만	9000
전 쟁 기 간	43일	아프간 3개월	21일 (바그다드 함락)
사 망 자	연합군 125 이라크 15만	미군 34 (사망 13, 부상 21)	연합군 149 이라크 3000~1만

전 쟁 결 과

한 정밀타격과 지상부대의 과감한 기동, 특수부대의 활용, 작전여건 조성의 중요성 등은 미래 전쟁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Ⅲ.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 가능성

군사전략 면에서 이번 전쟁이 주는 영향은 지대하다.

첫째,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는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으로 2개의 분쟁에 동시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1990년의 걸프전에는 50만명의 군대를 집결시켰으며, 이들의 집결에 5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 미국이 동원한 전력은 25만명, 그것도 정예 4사단은 전투에 투입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

다. 미국은 과거보다 적은 병력과 압도적인 정밀화력으로 신속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욱 신속히 증원전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미국이 2개 이상의 분쟁에서 동시에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선제타격 의미의 미국 군사력 사용이 더 쉬워졌다. 확증없이 심증만 갖고도 이라크 전쟁을 수행한 미국이 앞으로 외교적 목적달성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린즈펠드는 ‘전방으로 나가자’라는 구호를 외치는 프린스턴 출신이다. 세련된 관료의 절제보다는 저돌적인 파격을 선호하는 그는 약소국의 벼랑끝 전술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대부분의 미국 정서에도 부합된다. 이번 전쟁과

같이 단기간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군사력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면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셋째, 미군의 전방 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분쟁 예상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중(重)사단을 배치했다. 그것은 미군의 증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비교적 소수의 병력을 신속히 집결하여 승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많은 병력을 해외에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우방국에 기지를 확보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신속히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해외주둔 병력의 축소 등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이번 전쟁을 통해 'Rolling Start'라는 개념도 확실히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Rolling Start'란 병력이 도착되는 대로 전선에 투입한다는 개념인데, 과거의 전투개념에 의하면 금기시되어야 할 개념이다.

즉 전투력의 집중면에서 볼 때 병력의 순차적 투입은 전쟁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화력의 압도적인 우세, 동맹국에서 군사력 전개 공간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이 개념은 앞으로 미국의 군사력 사용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 강화된 미국의 위상, 문제해결에 있어서 군사적 수단의 효용성, 신속한 전개와 승리 등은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IV.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이번 전쟁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11테러에 의한 미국내의 충격과 안보 위협이다. 즉 3000여 명의 희생자를 유발하고, 최초로 미 본토가 공격받은 것에 대한 충격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감 또는 강박관념이 이번 행동을 유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또 다른 테러 가능성을 사전 제거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강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이러한 연속성 하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와 테러 가능성의 말살이라는 미국의 국익 추구는 명확한 증거 없이 심증만 갖고도 미국의 군사행동을 가능케 했다. 미국은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재표결도 거부한 채 군사행동을 단행함으로써 국익 달성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미국내뿐만 아니라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여론이 비등했으며, 전쟁에 찬성한 국가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수 존재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무

시하였다.

이러한 경과로 볼 때 미국은 앞으로도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외교를 전개하되, 북한과 같이 벼랑끝 전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더구나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군사적 행동 가능성은 전적으로 미국의 결정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미 국민들은 심증만 있는 가운데 전쟁을 하였어도 단기간의 승리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이외의 이유, 즉 인권탄압 등도 군사적 행동의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도 최악의 경우 군사 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사용했으며, 부시 행정부는 과거 클린턴 정부가 무기력하게 북한에 끌려 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미국은 북한의 선 핵포기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결과를 도출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은 확실한 증거 없이도 이라크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에 비하면 북한은 더욱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핵무기 보유 선언, 연료봉 봉인 제거 등). 더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최악의 현실이기 때

문에 미국은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할 만한 군사력 및 국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 군사행동을 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처음에는 외교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나, 군사력도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군사력의 격차, 국력의 격차를 이용한다면 미국은 중국에 개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북한에 강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을 보유하거나 군사적으로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면 중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나오면 중국은 좀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의 장기화 및 단기화에 따른 각각의 양면성이 다 존재하였다. 전쟁이 단기화될 경우에 미국은 이라크 전승의 여세를 몰아 한국의 핵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일 가능성 크며, 미 국민들도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지지할 가능성이 컸다.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단기화됨으로써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실제로 깨닫게 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은 이라크에 전력을 소진하여 다른 곳에 군사적 행동을 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국내에서 반전여론이 높았을 것이며, 미 정부에서도 다른 군사적 해결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또 다른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의 군사력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며, 미국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전쟁이 단기전으로 종료됨으로써 미국은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고, 북한은 미국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군사력 사용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작용하기 때문에 당장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V. 한국의 안보를 위한 제언

이라크 전쟁이 종료되면서 이제 한반도의 핵문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문제에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번 핵문제를 과거와 달리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전쟁’이란 단어가 말로만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무력 사용이 그저 외교적 허구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다. 그래서 중국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며, 북한도 재빠르게 다자회담의 수용 가능성을

구 분	내 용
9·11테러 참사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테러 가능성 제거(이라크, 북한) 아랍세계에 대한 테러 지원
아랍의 맹주 부상 억제	아랍민족주의와 반서방(반미) 결탁 (나세르, 호메이니, 카다피 등)
미국 영향 아래 중동지역 재편	이라크 장악으로 중동 중심에 미국 영향력 이식 - 이스라엘 안전보장, 아랍 전체에 영향력
석 유	이라크 석유매장량 세계 2위 양질의 석유

전쟁 원인

보이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해 국제적 비난과 130명 이상의 인명피해, 600억~1000억 달러의 전비 등을 무릅쓰고 전쟁을 감행했다. 그 결과 조기 종전에도 불구하고, 전비와 전후 복구비용의 상당부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재정적자로 인해 회복이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만큼 미국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 것이다.

이번 전쟁을 바라보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을 경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면서,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중 첫 번째는 전쟁의 원인에 관한 해석이다. 미국이 전쟁의 목적으로 이라크와 테러의 관련성,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방지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석유 때문이라는 주장이 한국에 확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중동에서 전후 우리의 이익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미국을 석유 때문에 전쟁을 하는 신제국주의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나아가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물론 석유는 중요한 전리품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인명피해, 국제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전쟁을 하는 이유를 석유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9·11테러가 미국인에게 가져다 준 경악과 공포,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은 막대하다. 자유와 인권이 기본 뿌리인 미국에서 국민들의 일상 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불편을 참으면서 미국인은 자국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느낀다. 1년 6개월이 지나도 그 경계심과 불편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전쟁의 목적이 석유 때문이라고 일축하는 것은 미국 아닌 제3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아무도 자유의 침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석유는 미국의 행동을 비난할 수 있는 명쾌한 이유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식의 생각이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비롯한 과거의 각종 참사에도 불구하고 쉽게 망각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이유로 미국을 비난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안보 입장에서 핵 및 테러의 위협을 좀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의 경시는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이다. 후세인은 정권을 잡은 이후 24여년간 일인 독재정치를 실시했다. 바트당에 대적할 만한 정치 조직체는 전무하며, 권력은 두 아들과 친척, 그리고 측근들에 의해 독점되어 있었다. 결사항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던 공화국수비대는 법 위의 조직체로서, 정규군이나 반란군의 바그다드 진입 차

단과 군 내부의 반대세력 색출을 주임무로 하는 개인 친위대였다. 그들은 후세인 일가의 명령만을 따랐다. 이들의 활약 덕분에 지난 걸프전 이후 수차례의 쿠데타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수천 명의 장교들이 처형당했다. 그리고 반대세력의 일부는 해외에 망명해 있다.

이 때문에 유엔 무기사찰단은 과학자들의 해외 인터뷰를 요청했을 정도이다.

우리의 전쟁 보도는 전쟁 반대와 전쟁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을 주 소재로 하고 있지만,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작 필요한 자유와 인권의 보장 문제를 경시하였다. 과거 자유와 인권을 위해 수많은 투쟁을 한 한국에서 후세인 치하의 국민들의 삶을 경시하고, 전쟁 피해의 참상만을 보도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잃고 말았다.

셋째, 전쟁을 가볍게 보는 문제이다. 전쟁이 점점 스마트화되어 가면서 마치 컴퓨터게임처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 얼마나 투자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정밀타격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폭격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조차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정밀한 장거리 타격! 이것을 보면서 누구나 우리도 미래에 저런 무기를 가졌으면 하고 바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생각을 멈춘다. 그러한 전력을 보유하기 위해 얼마나 국방비를 지출해야 하며,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여야 하는지 과연 몇 사람이나 생각해 보았을까?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는 약 750기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약 2만발의 폭탄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폭탄 중에는 70% 정도가 스마트탄이다. 토마호크 미사일의 가격이 7억~18억원, JDAM은 3070만원 정도이다. 이 외에도 항공모함이 4조 8000억원, 이지스 구축함이 1조 2000억원, M1A1전차가 60억원 이상이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사용한 전비는 우리 국방비의 7배가 넘는 액수다. 이 정도의 액수는 우리의 컴퓨터 보급률과 핸드폰 기술이 세계수준이라고 해서 감히 얻어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우리가 미국과 같은 군사력 보유를 희망한다면,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꼭 반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안보상황은 매우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 북한은 과거 공산권으로부터 원조가 중단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체제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고, GDP의 14%가 넘는 액수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기습공격이 가능한 전력을 휴전선 부근에 배치하고 있고, 공격을 위해 땅굴을 판다. 그리고 대량살상이 가능한 핵 및 화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그동안 틈틈이 해상도발 및 각종 루트를 통한 침투를 감행했기 때문에 경계태세를 한시도 늦출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한국군은 또한 세계적인 군사발전의 추세인 첨단화·정밀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안보현실에 따른 요구다.

한 국가의 국방비는 그 국가의 안보요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안보가 모든 국가활동을 보장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경제가 안보보다 우선적으로 취급될 수는 없다. 때문에 이스라엘·타이완 등의 국가들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GDP의 9%, 5% 정도를 국방비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상황이 이들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하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균 국방비율을 우리의 적정 국방비 논의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다. GDP의 3% 내외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안보 현실은 미래의 준비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도 없게 한다. 그만큼 우리의 위협은 직접적이고, 치명적이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현재의 군 규모를 줄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주변국의 군사발전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군사발전을 늦출 수도 없다. 이러한 안보 현실에서 자

주적인 국방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국방비는 증가하지 않고, 두 가지를 다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이라는 든든한 동맹국을 둔 덕분에 안보에 대해 비교적 위협을 덜 느껴왔다. 물론 우리도 전력증강을 해 왔지만, 미국이 있는 이상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되어 왔다. 이러한 의식이 두 세대 가까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 큰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마저 망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미 2사단의 한강 이남으로의 이전과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부각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준비하고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이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비교적 빠르게 다자대화해 임한 것은 북한의 국제감각이 살아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깨어 있는지, 아직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안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보아야 할 때다.

우리에게 막연히 전쟁은 없을 것이다, 또는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은 무의

미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쟁 도발에도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으며, 정치적으로는 핵을 무기로 한 위협에 계속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번 전쟁이 석유전쟁이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는 미국을 비난하는 여론만 확산되었다. 아울러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피해 가능성은 언급도 되지 않으면서, 마치 우리의 안보문제를 망각하는 듯한 분위기가 되어 버렸다.

국가의 행동은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명분과 실리는 국익을 달성하기 위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한 나라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명분을 존중하되 국익을 좇아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약소국일수록 명분보다는 실리에 의해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명분 등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식견이 좁은 결과이며, 반미감정을 유발하기 위한 빌미로 이용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전반적으로 국제정치가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 국민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민

족공조를 주장하고, 북한 핵은 통일시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강경책도 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안 제시는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 끌기 식이나, 사실상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대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도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속으면서 끌려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어설픈 대안으로 미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할 경우 미국은 한국과의 공조에도 불구하고 단독 행동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국은 최악의 경우, 우리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입각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중요한 시기이다. 북한은 과거부터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해 왔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그들의 적화통일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인계철선 역할을 하면서, 증원 전력과 더불어 유사시 북한체제를 전복하



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는 큰 억제력이 되어 왔던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는 한국군의 준비가 완벽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전쟁 발발 이후 미군에 의한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 때문에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미국과 북한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면 북한은 그만큼 한국에 대한 군사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불가침조약 체결 주장은 일견 평화를 원하는 것 같으나 우리에게서는 매우 치명적인 조치이므로, 이 조약의 체결은 막아야 한다. 불가침조약의 체결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불가침조약의 체결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일부 과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일단 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미국과 불가침조약 체결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북한에 이로운 발언이다.

북한이 체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불가침조약을 주장하기 전에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군대의 철수, 공격적 무기의 재배치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한·미 연합군의 전력은 북한의 공격 가능성 때문에 준비태세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휴전선 이남지역에 지뢰를 매설한다든

가, 몇겹 방어선을 선정하여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든가, 북으로부터 서울에 이르는 주요 도로상에 대전차 방벽을 건설한다든가 하는 한국의 준비는 분명 방어적이지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VI. 결론

어쩌면 한국과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라크에서의 전쟁은 실제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전쟁이었다. 핵 및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태도, 군사력 사용 가능성, 평소의 준비태세 관련 변화 가능성, 제3지역에서 분쟁시 미군과 동맹군의 역할 분담관련 문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회담 가능성 등 한반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으며, 미군 전력의 축소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이

었던 한국의 방어 문제도 한발짝 더 한국군의 발 아래 다가온 느낌이다.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경제적 협력은 있으나 긴장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는 행해지고 있지 않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한국 안보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명분과 민족적 감정 등에 의한 미국의 비난이나 북한에 대한 동정심은 안보를 악화시킬 뿐이다. 명분이나 민족감정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야 한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안전장치를 우리가 스스로 배척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담당하려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국방비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국론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합참**